1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 참석한 각 구단 사장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사회는 KT-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200억!…KT, 야구발전기금 '통 큰 베팅'이 통했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 KT-수원, 평가위 평가 16-5 압승 원동력

부영 80억과 2.5배 차이…평가단에 어필
프로 야구단 운영 능력·창단 의지도 앞서
시장·도지사 참석 등 지자체 호응 압도적

16대5. 압승이었다. KT-수원이 부영-전북을 누르고 제10구단 창단주체로 낙점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3년 제1차 이사회(사장단 모임)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KT-수원을 신규회원으로 총회(구단주 모임)에 승인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KIA 이삼웅 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KBO 구본능 총재와 양해영 사무총장, 8개 구단 사장들이 참석해 전날 열린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를 했다. 그동안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사안을 총회가 뒤집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KT-수원이 프로야구의 10번째 심장으로 결정된 것이다.

●KT-수원, 16대5로 압승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KT-수원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총 22명의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회를 총괄한 김종구 평가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21명이 개별 평가에 나섰다. 30여개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결과 표결로 보면 KT-수원이 16명에게서 지지를 얻었고, 부영-전북은 5명으로부터 우세 판정을 받았다. 3배 이상의 차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A구단 사장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다"고 귀띔했고, B구단 사장도 "사장단 대부분도 KT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였다"고 말했다. B구단 사장은 그러면서 "이사회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껄끄러운 분위기 없이 결정이 났다. 삼성, SK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결과보다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KBO에 물었고, KT의 가입금 등을 논의했다"며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사회 심의 분위기를 전했다. 부영-전북도 5대16으로 크게 패한 사실을 파악한 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를 취했다.

●격차가 크게 난 까닭은?

당초 팽팽한 접전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KT-수원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KT의 지속적인 구단운영능력과 프로야구가 스포츠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부분 등에서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한 평가위원의 증언을 들어봤다. C위원은 익명을 전제로 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 배경을 짚었다.

우선, 야구발전기금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C위원은 "부영도 80억원으로 많은 금액을 써냈지만, 평가위원들이 볼 때 KT의 200억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업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프로야구단 운영능력과 의지에서 확실히 더 점수를 벌렸다는 것이다. 또 프레젠테이션(PT)에서 보여준 기업과 지자체의 유기적 관계 측면에서도 KT-수원이 앞섰다는 전언이다. 그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물론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 PT 현장에 참석해 KT는 지자체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PT를 통해 과시했다"고 말한 뒤 "부영 쪽에는 야구장을 건설해야 할 전주시 관계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만 뛰어다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프로야구 제10구단 평가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비고
1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변호사)	평가위원장
2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학계
3	김화섭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	
4	홍석표	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5	한준영	영남대 체육학부 교수	
6	어우홍	야구원로	야구인
7	양상문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8	윤정현	대한야구협회 전무이사	
9	이광환	베이스볼아카데미 원장	
10	이효봉	XTM 해설위원	
11	박충식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12	이영만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미디어 관계자
13	박영문	KBS 대구방송 총국장	
14	천병혁	연합뉴스 부장	
15	민훈기	XTM 해설위원	
16	박준민	SBS-ESPN 제작팀장	
17	김상헌	NHN 대표	
18	최원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법조인
19	진성민	회계법인 성지 상무이사	회계사
20	정수환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컨설턴트
21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	야구팬
22	김기홍	문화체육부 고위공무원(전 체육국장)	행정가
23	박기철	스포츠투아이 전무	야구전문가

※박영문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KBO, KT-수원 PT는 공개할 듯

"공약 지켜지려면 팬들도 알고있어야"
탈락팀 배려차원 평가점수는 비공개

KT-수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제10구단 선정과정의 평가점수와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야구팬들에게 공개될까.

한국프로야구는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기업-지자체의 경쟁 끝에 10번째 구단을 낳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외압, 오해, 로비를 막기 위해 2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해 객관적 판단을 주문했다. 마지막 절차인 구단주 총회에서 10구단이 최종 확정되면, KBO는 평가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과 PT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1일 이사회 직후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양측 모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훌륭한 약속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지려면, 야구팬들 모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최종 10구단으로 결정된 연고지와 기업에 한해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탈락한 곳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부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평가항목은 총회 후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3명의 평가위원은 사실상 10구단 선정의 주체였다. KBO는 객관적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다.

양 총장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외압, 혹시 모를 로비를 막기 위해 보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김종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박영문 KBS 대구방송총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모두 22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위원 수가 짝수가 되자 김 위원장은 진행만 맡고, 개별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11일 KBO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박화용 기자

■ KT 10구단 창단 남은 절차는?

구단주 총회서 최종 승인 확실

이사회 결정 반대 전례 없어…8월 신인 지명 참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11일 신규회원으로 KT-수원을 택했다. 남은 절차는 구단주 총회의 승인뿐이다. 야구규약 제2장 회원 제6조에 따르면, 'KBO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T-수원이 부영-전북을 누르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총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창단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KT-수원도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제3장 참가자격 제8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지 않고 있다.

총회는 회원사 구단주(대행)들의 일정만 조율되면 다음 주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KT-수원의 10구단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례를 살펴봐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총회에서 뒤집힌 적은 없었다. 총회의 승인이 나면 KT-수원은 올해 8월 열릴 2014년 신인드래프트부터 참가한다. 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10구단 선수수급 지원안이 9구단 NC에 준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만큼 신인지명회의에선 우선지명권 2장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퓨처스(2군)리그에 참가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2015시즌 1군에 진입해 나머지 9개 구단들과 격돌한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KT vs SK vs LG…이통사 삼국지 흥미진진

■ 프로야구 10구단 체제의 변화들

수도권 5개 구단 전철시리즈도 관심

KT는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를 통해 제10구단 창단주체로 사실상 낙점됐다. KBO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뒀지만, KT의 프로야구단 창단은 확정적이다.

KT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좋은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 창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KBO 총회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총회에서 승인이 나면 기자회견을 갖고 10구단 창단 로드맵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창단작업에 착수한다. 그 전까지는 야구단 창단과 관련된 사항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KT의 가세로 프로야구는 10구단 체제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전망이다. KT가 1군에 합류하는 2015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 라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KT의 10구단 창단으로 이동통신사를 보유한 KT, SK, LG 등 대기업 3사는 야구를 통해서도 치열한 경쟁구도를 이어가게 됐다. 프로농구에서 이미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이동통신 3사의 맞대결은 프로야구에서도 새로운 흥행카드가 될 수 있다.

수도권 5팀의 전철시리즈도 가능해진다. LG, 두산, 넥센, SK의 홈구장은 모두 수도권 전철역과 인접해 있다. KT가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원구장 인근에는 현재 전철역이 없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7년까지 수원역에서 수원구장을 잇는 노면전차를 건설하고, 2019년까지 수원구장역이 포함된 복선전철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5개 구단의 홈구장은 모두 전철로 접근이 가능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홍보 효과·도민 단합…부영-전북 '짭짤한 패배'

■ 아름다운 도전이 남긴 것들

"졌지만 아마야구 지원 공약은 지킬 것"

10구단 유치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부영-전북은 마치 대선에서 진 뒤 선거사무소를 해산하는 듯한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결과에 승복한다"는 깨끗한 자세를 보여줬지만, 유치 선언 뒤 전력을 다하고도 바라던 바를 얻지 못한 허탈감은 어쩔 수 없었다.

부영-전북 관계자는 11일 "야구발전기금 200억원, 돔구장 건설비용 5000억원을 써낸 KT-수원에 자본력에서 밀린 것 같다. 우리도 돔구장 제안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의 뜻을 표했지만, "야구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많아서인지, (KT-수원이) 액수를 크게 써낸 것이 호소력이 있었나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총회로 넘어가도 결과가 뒤바뀌긴 어려운 현실을 알면서도 "구단주들이 혹시라도 전북의 진정성을 감안해서 (결과를) 되돌려주신다면…"이라는 진한 여운도 남겼다.

이 관계자는 부영-전북의 10구단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전북도민이 받게 될 상실감을 가장 걱정했다.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전북과 부영은 공약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 아마야구 지원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했다.

비록 꿈을 이루진 못하게 됐지만 부영그룹은 막대한 홍보효과, 전북은 지역민의 단합이라는 무형적 소득을 얻었다. 또 부영-전북을 위해 뛴 야구계 인사들의 정성을 다한 노력은 객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원-KT와 끝까지 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KIA 이용규 4000만원 오른 3억4000만원 계약

KIA는 11일 외야수 이용규와 지난해 3억원에서 4000만원(13.3%) 오른 3억4000만원에 올해 연봉 재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용규는 지난 시즌 1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3, 44도루, 37타점 86득점을 올렸다. KIA는 2013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 중 서재응을 제외한 46명과 협상을 마쳤다

편집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